고문 조작의 인혁당 사건

이 영 교

*이영교님은 민청학련사건 당시 소위 인혁당 재건위에 관련된 혐의로 무고하게 처형되신 고 하재완님의 미망인이다.

인혁당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난 29년의 시간은 새삼 돌이켜 생각하기조차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여러 지면과 방송을 통해 그간의 어려움들이 알려진 바 있지만, 그때마다 되살아나는 기억들은 오히려 칼날같은 예리함으로 가슴을 파고 들었습니다.

29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통일민주열사의 집안이라는 명예로운 호칭도 얻게 되었지만, 인고의 세월을 당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가족들이 견뎌온 고통을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이 너무나 애통해 오직 떠난 분의 명예회복이라는 일념만으로 서울과 각 기관으로 뛰어다니는 동안 남겨진 5남매들은 고아아닌 고아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비록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 살기에 부족하지 않던 살림마저 경비로 다 써버려 어린 자식들의 양식마저 떨어지게 되었을 때와, 배우고 익혀야 할 자녀들의 뒷바라지조차 할 수 없었던 때의 그 아픔을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정부에 이어 이제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가신 분들의 사면복권을 점차 기대하게 되면서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던 아버지는 조국을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던 아이들은 이제 사회의 어엿한 일원으로 성장하였고, 선친의 죽음이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할 수 없는 선명한 흔적으로 남겨질 것을 확신하면서 지나온 세월의 고통과 수없이 흘렸던 눈물들도 희망의 결실로 맺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청학련 30주년을 맞이한 지금, 민청학련계승사업회가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가신 분들의 사면복권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소위 인혁당 사건은 1974년 4월 4일 긴급조치가 선포되면서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한 인혁당으로 불리어지고 있지만, 29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많은 분들이 잊어버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잊고 싶어 하는 사건입니다. 인혁당을 조작할 당시부터 중앙정보부에서는 가족들에게조차도 잊지 않으면 구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며, 억울한 죽음 앞에 놓여진 여덟 분의 유언마저도 "나는 공산주의자다"라고 조작한 생각할수록 몸서리쳐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빨리 잊게 하려고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대법원 판결이 난 다음날 새벽에 한꺼번에 여덟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사실은 세계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외신에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1974년 사건 당시 저희 남편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비민주적이며 반민족적 폭거에 항거하여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의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유신헌법의 위헌성을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과 그 친구들은 모두 인혁당 당수, 조직책 또는 자금책 등으로 각각 중앙정보부로부터 직책을 배당받아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의 초기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반유신민주화운동을 벌이던 학생들을 '민청학련'이라는 이름 아래 대거 검거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인혁당'이라는 가상의 공산주의 정당이 배후 조종하여 민청학련을 움직였다는 거짓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고문으로 사건의 전말을 조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의 격렬한 항거에 부딪혀 조작설이 나돌게 되자 가족들을 집요하게 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75년 1월 초순경에는 담당형사가 찾아와 가족들 면회가 될 모양이니 의논하자고 하여 반가운 마음에 따라 나섰더니 경찰서 상황실에 데려다 놓고는 잡범

들 속에서 밤을 지새우게 하고, 이튿날 중앙정보부원들이 와서 서울 남산의 중앙정보부로 데려갔습니다.

이틀 동안 의자에 앉혀둔 채로 잠 한숨 자지 못하게 하고서는 "내 남편은 공산주의자다. 정부에 폐를 끼쳐 미안하다"라는 글을 한 장 쓰면 보내 주겠다면서 회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사건이란 것이 다 그런 것 아니냐. 인혁당이 조작이라고 계속 떠들면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을 사실대로 만들지 모르는 일이니, 가족들은 가정이나 돌보며 아이들 잘 키우고 있으라. 시국이 조용해지면 곧 풀어 주겠다"는 말로 당시의 여론과 상황을 무마시키려고도 하였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 앞에 그저 황망하기만 하던 가족들은 정보부의 말을 그대로 믿고 어떤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당시 재야단체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던 구명운동과 기독교회관에서 열리던 목요기도회조차도 참석을 자제한 채 오직 남편의 석방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5년 2월 중순 경 민청학련만 전원 석방이 되었다는 소식에 절망에 빠진 인혁당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그제야 정의구현사제단과 윤보선 전대통령, 김수환 추기경 등 도움을 청할 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후 가족들에 대한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목욕을 가거나 시장을 갈 때는 물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시작한 행상과 시외 수금활동에까지 미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를 했을 때는 형사들이 수위실에 앉아서 가족들의 행동을 살피기도 하여 이웃들로부터 심한 눈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다 마주쳐 항의라도 하게 되면 상부의 지시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고, 때로는 얼마 동안 외출 금지를 당하거나 담당 형사들이 행선지까지 동행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욕과 탄압은 남편

의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어 심지어는 묘지에 세워둔 묘비마저도 주변의 묘비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빼앗고 다시 세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신문에서는 동물원에서 사육하던 동물이 새끼를 낳은 일은 동물원의 큰 경사로 보도하면서 남편의 일은 왜곡하여 보도하기 일쑤였습니다.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위반이라는 죄를 씌우고 북을 이롭게 하였다고 과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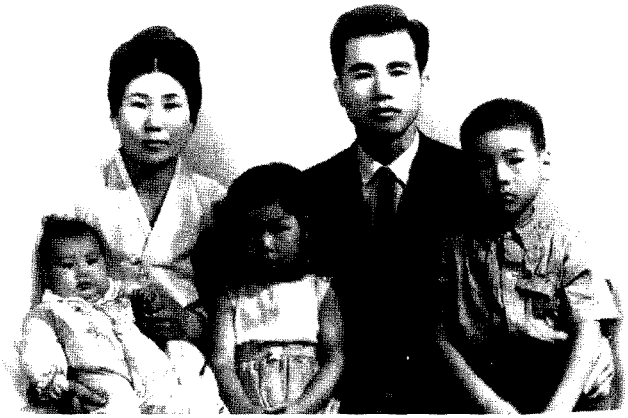
박정희 독재정권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인사들을 장기집권의 걸림돌로 파악하고, 보안법을 적용하여 어머니로부터 아들을, 아내로부터 남편을, 아이들에게서는 아버지를 빼앗은 것입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던 양심인들이 억울하게 사형을 언도받았는데도 당시의 언론사들은 독재정권의 눈치만 살피면서 현실을 외면하였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저와 남겨진 아이들에게 현실은 기억하기조차 두려운 아픔이었습니다. 한 동네에 살던 이웃들이 모여 "동네 한 가운데 간첩을 두고 살았다"고 수군대면서 저희 집 근처에는 아이들이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따가운 눈총과 수군거림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장성한 막내아들은 당시 겨우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있던 4살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동네아이들은 "너희 아빠는 간첩이다"라며 새끼줄에 목을 매어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나중에는 나무에 묶어놓고 총살시키는 시늉을 하였습니다. 그런 장면을 동네 어른들은 만류하기는커녕 웃으면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둘째 딸아이의 소풍날에도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의 소풍에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 혼자 소풍을 간 딸아이 점심시간에 반 아이들이 몰려와 도시락에 개미를 넣고 간첩의 딸이라며 돌팔매질을 당하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학부형 중 한 사람이 뒤늦게 아이들을 만류하여 큰 사고는



고 하재완 선생과 부인 이영교씨 가족

막을 수 있었지만, 이미 마음의 상처를 입은 딸아이는 나무 뒤에 숨어 울면서 도시락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저는 차라리 제가 죽어 아이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다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장기집권을 향한 야욕 때문에 아이들 가슴에 지울 수 없는 그늘과 상처를 남긴 현실 앞에서 저는 수없이 무너졌고 또 수없이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인혁당이란 과거에도 현재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앙정보부의 각본에 의해 철저히 은폐된 가장 비열한 사건,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랄한 고문과 그로 인한 피로 얼룩진 사건, 박정희 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의 도구로 희생된 정치조작극이라 함이 옳을 것입니다. 나의 남편, 내 아이들의 아버지는 확고한 이론과 올바른 실천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한 대중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다만 시대를 앞선 통찰력으로 사랑하는 조국의 민주주의와 자주평화통

일을 기원했을 뿐입니다.

이런 남편이 공산주의 사회건설, 또는 인혁당 재건을 위해 지하조직의 경북지도부를 구성하고 경북대학의 데모를 주도 · 조종하여 온 여정남을 상경시켜 정부 전복의 중심체가 될 전국적인 조직을 결성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남편을 포함한 인혁당의 피고인들은 3 · 4월의 위기설을 이용, 일제히 폭력봉기를 일으킴으로써 정부를 전복하기로 합의하여 이수병에게 여정남을 인계하여 민청학련을 결성시키는 한편, 대한민국정부를 전복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남편은 큰 아들의 가정교사였던 여정남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4호를 위반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후진술에서 저희 남편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행동 또는 활동한 사실이 없었다고 극구 부인하였으며, 공소사실 32개 항목 중 6개 항목만 시인하였으며, 그것 역시 아무런 목적의식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1. 여정남은 6년 전 아들의 가정교사로 있었다는 사실뿐이다. 어떻게 자식의 가정교사였던 사람을 고지할 수 있겠나. 이수병과 이철은 모르는 사람이다.

2. 맨주먹으로 어떻게 정부를 타도 · 전복할 수 있겠는가? 현정부가 그렇게 빈약한가!

3. 나도 6 · 3 한일수교는 굴욕 외교이므로 반대하였다.

4. 삼선개헌은 국민다수가 반대한 것으로 안다. 나도 그중의 한 사람으로 삼선개헌이 통과된 지금 과거의 일로 문제삼을 바 없다고 본다.

5. 유신헌법은 한 사람의 장기집권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였다.

6. 적을 알려면 적진에 뛰어 들어가 보란 말이 있듯이 나도 북을 알

고 싶은 생각에 병석의 몸으로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북방송을 듣고 어떤 구절은 기록도 하였다. 그렇다고 사형이라니 어처구니없다.

7. 정책과 정관도 없는 당이 있을 수도 없으며, 특히 우스운 것은 서울 중심가의 다방이나 무교동의 번화한 술집에서 정부 전복을 모의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나는 중앙정보부의 과잉충성으로 공산주의자로 몰리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10년 전 인혁당을 조작한 수사관이 현재 인혁당 사건을 허위 조작한 동일인물임을 밝히고 이 점을 강조한다.

남편은 인혁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지하실에 갇힌 채 3일씩이나 잠도 자지 못하고 심한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탈장이 되고 항문까지도 빠져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괴로운 것은 평상시 아는 사람 20명의 이름을 말하라면서 수없이 때리는 것이며, 그때 귀가 잘못되었는지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문에 지칠대로 지쳐 횡설수설한 것을 진술서로 작성하고 그 내용도 읽어 보이지 않고 손을 비틀어 강제로 지장을 찍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재판정에서 말하니 문호철이란 검사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지르며 피고의 눈이라도 찌를 듯 손을 뻗어 "너 덜 맞아 그 따위 소리를 하는 모양인데, 나중에 더 때려 주지. 각오해"하면서 두 눈을 쏘아 보는 모습은 참으로 공포스러웠습니다.

문호철 검사의 이 말은 피고인을 구타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의 발언인 동시에 이후 고문이 계속될 것이라는 암시였습니다. 재판정에서 벌어진 사건 담당 검사의 광적인 그 모습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감히 믿기 어려웠으며, 또한 피고인들과 더불어 재판을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도 또 다른 굴욕과 상처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런 일이 있은 다음 날 재판정에서는 피

고인들중 그 누구의 입에서도 고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군사재판은 최소한의 상식마저도 벗어난 무법과 불법, 그리고 폭력 그 자체였습니다. 완전 무장한 헌병이 법정 안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으며, 피고들의 앞뒤 · 좌우에도 네 명의 교도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 한 사람당 한 명의 가족만 법정 방청이 허용되어 소지품과 몸수색을 당한 후에야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피고들은 두 팔을 뒤로 묶인 채 일체의 발언이 묵살되었습니다. 검사가 공소사실(허위 날조된)을 낭독하는 동안 피고인 전원은 그에 따라 앉고 서기만을 반복하는 허수아비 노릇만을 한 것입니다. 결국 검사와 재판장이 구형, 선고, 기각만을 외쳐대는 일사천리로 마무리된 비밀재판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그 날의 재판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신성한 법의 공정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어설픈 정치조작극의 무대인 것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증인과 증거도 거부당하였으며, 변호사의 면회 회수와 시간도 제한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반대 심문조차도 시간제한의 이유로 기각당하였으며, 출입기자는 물론 가족들의 면회와 서신 한번 허용되지 않은 채 재판은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1975년 4월 8일 10시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은 피고인 전원은 출석시키지 않고 가족 한 사람씩만 방청이 허락되었습니다. 13명의 판사가 피고인들을 호명한 후 상고기각, 형 확정이라는 말만 남기고 법정을 퇴장하는 사상유례가 없는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에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눈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하였습니다. 저는 순간 어린 다섯 남매가 떠올라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무슨 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그저 주저앉아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여덟 명의 피고인들은 재심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재판 18시간만인 1975년 4월 9일 새벽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판결은 이전과 이후에도 사법부에서 가장 치욕적인 오점을 남긴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올바른 평가를 받아 정리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이제라도 역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법의 존엄성과 정의가 바로서기를 기대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의지할 곳은 사법부이며, 사법부는 인권보장의 보루이며 또한 문명국가의 등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남편을 비롯한 여덟 분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땅의 안녕을 걱정하며 돌아가신 이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저와 저희 인혁당의 가족들은 한 남자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여자로서 지금까지 남편의 이름 석자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기억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인혁당의 진상규명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윤보선 전대통령은 박정희가 정부 각 요원들 앞에서 '정권 18년 동안 남긴 가장 큰 오점은 인혁당 여덟 명을 사형시킨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은 방법이 있었을 것인데'라고 후회된다고 하였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 주길 바랍니다.

또 민청학련 사건으로 여러 고초를 당한 많은 분들도 이제는 우리 사회의 중추로 사회발전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도 인혁당 사건의 올바른 자리매김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인혁당사건 유가족의 개인적 이해가 아닌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기 위한 살아남은 자의 의무라는 믿음에서입니다.